

코로나, 기생충 그리고 성격



진성오 소장
신비한 심리사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전과 매우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오랜 기간 마스크를 쓰고 사람과의 관계를 원격단념으로 변화되도록 하여 혹자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인류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혹시 우리의 성격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실 인류역사에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인간의 성격 유형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대한 영향을 주고 받았다. 더 정확히는 인간 성격 중 기질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빅5 성격이론'에서 말하는 '개방성'과 매우 연관관계가 높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뭔가 새로운 것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문학이나 미술, 혹은 연애 더 크게는 문화 진보에 매우 중요한 형질의 성격 차원으로 알려져 있다.

학자들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공중위생

과 의학이 생기기 전에는 인간의 질병, 죽음, 불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기생충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생충들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 같은 유익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 유해한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인간은 생화학적 방어 시스템을 진화시켰는데 이를 적응성 면역계라고 부르고 이것의 대표적인 것들은 림프구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각 개인의 림프구들은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집단에서 흔한 종류의 기생충을 물리치도록 학습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만난 기생충물에 대한 면역 기억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면역계가 학습한 기생충물에 대한 저항성은 지역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서 면역계의 학습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지역성으로 이 기생충물을 보면 다른 친족, 다른 씨족, 다른 부족, 다른 민족, 다른 인종 출신의 사람들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숙주에게 전염되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숙주를 감염시켜 병들게 만들도록 진화한 다른 종류의 기생충물을 갖

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외부인들과 교류하면 해당 지역의 기생충물 이외의 세균들에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 방어적이 되고 더 조심하게 되는데 이러한 집단은 사전 대처 방식으로 심리적 면역계나 방어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데, 아예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사람과의 접촉을 회피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기생충물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외래인공포증'이 클수록, 그리고 자민족중심주의가 강할수록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 반대도 옳다. 즉 전염병이나 기생충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사람들은 좀 더 타 문화나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쉽게 진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이 개인적인 성향으로 개방성이 높아지는 성향을 갖게 된다고 설명된다. 즉, 개방성인 높은 사람은 새로운 생각, 경험, 장소, 문화를 찾도록 추동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전염병 혹은 기생충물이 인간의 성격적 성향의 한 특성을 만드는 효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진성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불법을 저지를 권리' 수호한 텔레그램



김지수첩
김서현 (산업부)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가 마침내 체포됐다.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제작자인 그는 텔레그램의 존재 의미를 정치적 자유로 들었다. 텔레그램은 그보다 앞서 개발한 SNS 프론티어(Vkontakte)의 반정부 인사 정보를 러시아 정부가 요구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이 탓에 텔레그램은 강력한 보안성과 각국 정부와 타협하지 않는 이용자 보호, 전면 무료 서비스 제공을 장담했다.

빛 좋은 개살구가 있다면 텔레그램일 것이다. 얼핏 보기에 표현과 민주적 자유를 모두 수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텔레그램은 온갖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요람이 됐다. 각국 수사기관 및 정부와 절대

협력하지 않는다는 선언은 곧 텔레그램 내 오가는 모든 대화가 어떤 형태든 수호한다는 의미가 됐다.

당장 한국에서 일어난 텔레그램과 관련한 범죄 행위들만으로도 팔만대장경을 쓸 수 있는 지경이다. 가깝게는 '겹지인방'으로 불리는 일련의 채팅방에서 일어난 일반인 답페이크 성착취물 합성 사건이 있고 유명인사가 연관된 사건으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이 있다. '박사' 조주빈을 필두로 수만 명의 남성들이 죄의식 없이 10~20대 어린 여성들을 성착취한 'n번방' 사건 또한 고작 3년 여 전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강력범죄다. 온갖 마약을 텔레그램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제는 공공연한 일이다.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사건을 검거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텔레그램에 수차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텔레그램은

묵묵부답이었다. 수사기관은 장기간에 걸친 잠입 수사와 유심칩 분석을 통한 범죄 입증 등 텔레그램의 도움 없는 수사기법으로 범인들을 잡아 놓아야만 했다. 파벨 두로프의 검거 소식이 전해진 후 텔레그램의 여러 성착취 단체 채팅방에서는 파벨 두로프의 검거가 곧 수사기관 협조를 뜻하는 게 아니니 안심하라는 어이없는 자위가 이어졌다.

이번 사건이 과연 향후 텔레그램 내에서 일어나던 불법 행위들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텔레그램 측은 CEO의 검거 후 뒤늦게 "텔레그램은 EU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는 공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는 플랫폼에게 불건전 불법 정보의 단속 책임을 묻고 때에 따라서는 전세계 매출의 10% 가량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텔레그램의 선택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지금, 텔레그램의 정의로운 선택을 기대한다.

/seo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8월 27일 (음 7월 2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잠시 머물러 생각해 잠겨보자. 48년생 마음이 편하니 복이 절로 들어온다. 60년생 과유불급이라 약간 부족한 것도 아름다운 인생이다. 72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데 길을 비켜준다. 84년생 표리부동을 참아 내야 한다.



37년생 나무에 즐기만 자라고 꽃이 피지 않을 때도 있다. 49년생 작은 가시가 신경을 거슬린다. 61년생 시작이 좋으니 결과도 좋다. 73년생 체면치레로 손실이 커지니 거품을 줄이자. 85년생 사투에게 지시받는다고 다투거나 할 것 없다.



38년생 무관심이 화를 부르니 작은 일에도 신경을 써라. 50년생 밤을 이겨내면 찬란한 새벽을 본다. 62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이 오니 우산은 필수. 74년생 승진이 되니 천국에 온 듯 행복하다. 86년생 인생은 언제나 불행 중 다행이다.



39년생 거울 속의 얼굴은 천사인데 다시 보면 마음이 악마. 51년생 소문난 잔치에 나만 초대받지 못한다. 63년생 삼각관계의 사랑은 언젠가 비수로 돌아온다. 75년생 가까운 곳에 행운이. 87년생 자신을 낮추고 사람을 공경해야 할 때.



40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52년생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다시 도전. 64년생 남에게 주어본 사람은 베품의 행복을 안다. 76년생 상쾌하니 능률도 두 배로 증가. 88년생 사랑은 봄에 피는 꽃처럼 희망을 품게 된다.



41년생 환경의 구애를 받더라도 운이오니 이동하자. 53년생 해외파견소식에 마음은 들뜨고 바쁘다. 65년생 매사에 나의 일이라 생각하자. 77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뒷말하지 말고 미리 거절하라. 89년생 고생을 하면 결과가 있게 마련.



42년생 예나 지금이나 운명을 헤아려 본다. 54년생 돈거래는 신중하지 않으면 다 부셔진다. 66년생 이사하려 하나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78년생 이직이 어려워니 인내심으로 극복해야. 90년생 싫은 일을 당하여도 내색조차 할 수 없다.



43년생 저축을 위해 좋아하는 취미를 포기. 55년생 당구삼년생페퍼월(堂球三年吠風月). 67년생 동상에 걸린 발을 열음물에 넣는 격. 79년생 열렬하고 부작전한 만남을 경계해야 미래가 평온. 91년생 부질없이 세월만 보내며 한탄하는 인생이려나.



44년생 늦바람 삼각관계를 유의해야. 56년생 관절 질환이 걱정되니 계단 조심. 68년생 주변의 말씀을 경청할 필요도. 80년생 친구는 서로에게 보물과 같은 존재이니 평소 애독히 지내자. 92년생 언택이 물어 결국 집안이 망했다는 속담이.



45년생 그리움이 밀려오지만 대담 없는 메아리이니 이별하기 전에 신중. 57년생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하루. 69년생 희식 때 시지풍 조심. 81년생 과음하여 머리 아프지 않게 적당히. 93년생 부모 집안싸움에 노이불사(老而不死)생각만 가득.



46년생 가장 문제로 회기가 펼쳐진다. 58년생 산이 좋은지 물이 좋은지. 70년생 겸손하게 도전을 해내야만 이익을 얻게 된다. 82년생 물실회기(勿失好機)와 같이 좋은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 94년생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을 놓고 알기말부.



47년생 참아도 이해해도 배우자 덕이 없어 평생 괴로운. 59년생 과거 재능을 발전시키니 유용하다. 71년생 동업자와는 양보하고 상부상조로 인내. 83년생 지난 사랑에 연연하지 말자. 95년생 실패도 실제적인 내용이 없으니 실력을 키우는 것이.



김상회의四季 성격이 팔자

성격이 팔자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팔자대로 살지만 성격이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알파걸처럼 살아온 오십 초반의 여성분이 상담하는 중에 한숨을 푹 내쉬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건 후회뿐이란다.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니 성격이 팔자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다. 이십 대 중반에 결혼하고 경제활동과 살림에 육아까지 소홀히 하지 않고 살아왔다. 책임감이 강하고 모든 게 자기 손을 거쳐야 안심하는 성격이다. 사주를 짚어보니 갑인일주甲寅日柱다. 갑인일주는 남자든 여자든 생활력과 책임감이 강하다.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벌이를 하는 사람이 많다. 책임지겠다는 생각이 남편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걸 편하게 생각지 않으며 하늘과 땅에 모두 갑목甲木이 있으니 항상 부지런하고 무엇이든 자기 뜻에 맞춰야 하니 열심히 움직인다. 사는 게 파곤해질 수밖에 없다. 상담을 청한 여자가 딱 그렇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재산도 많이 모았고 아이들도 명문대에 들어갔다. 이제 한숨 돌리고 여유 있게 살아도 되는 데 여전히 책임감으로 산다. 능력 있는 남편이 있는데도 집안 경제를 자기가 책임지려기를 쓰면서 일하고 집에서는 청소 요리도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다.

그렇게 살았더니 남은 게 관절염이란다. 하루 걸러서 병원에 다니는데 가족들은 별 관심을 안 보여서 허무하고 슬픈 마음에 사주를 보고 싶었다고 한다. 성격이 팔자다. 틀린 말도 아니니 자기 자신이 힘들다. 성격 때문에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되면 조금씩 바꾸어 가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워니 조금씩 털어내면서 몸도 마음도 부담을 털어보라. 성격을 바꾸는 게 어려우면 사는 방법을 다르게 하면 된다. 그래야 성격이 팔자가 되지 않는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8				3
	1	8					5	
		5		1				
				5			9	1
5	6			2				
				4		3		
		7				9	6	
1				9		4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과파를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9	7	2	6	9	8	2	1
2	9	6	8	8	1	2	9	7
2	1	8	2	7	9	6	8	9
7	8	2	6	2	8	1	9	9
9	2	9	1	2	8	7	6	8
1	6	8	9	9	7	2	2	8
9	8	2	7	1	2	9	8	6
6	7	9	8	9	2	8	1	2
8	2	1	9	8	6	9	7	2

metro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0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60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